

주기도문

▶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9-13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여는 물음

1.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에게 허락된 일용할 것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3. 평소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 말씀 다시보기

1. “양식을”

본문의 ‘양식’은 헬라어로 ‘알톤’인데, 이는 유대인의 주식이었던 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양식은 단순히 먹는 빵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양식’은 단지 “쌀이나 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신 후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오늘…일용할”

1) 이 말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 ‘날마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하루 쓰임에 적당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2) 이 말은 매일 매일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내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매일 내리시는 만나에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했으며, 그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신앙을 지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 “우리에게”

본문에서 구하는 양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잘 먹고 잘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과 관련된 세 가지 청원에서 모두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관심이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돕는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용할 것들을 얻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정리하기

1. 예수님은 가난으로 굶주린 백성들의 처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배부르고 탐욕스러운 자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이상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매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가능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양식을 나누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의 양식도 함께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낱알이 아시는 주님! 살아가는 동안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속에 주어지는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양식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